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박 성 훈**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다양한 범죄피해유형 중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주목하여,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08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가구수준의 범죄기회요인과 지역수준의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개별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개별가구수준의 범죄피해가능성을 높이는 지역적 조건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개별가구수준에서는 예상과 달리 노출이나 보호능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주거형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할수록 범죄피해를 덜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수준에서는 사회경제수준이나 주거불안정성, 집합효능감에 비해 근접성의 효과, 즉 잠재적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범죄기회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이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주제어 : 가구범죄피해, 일상활동이론, 사회해체이론, 아파트 주거문화, 근접성

*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발표한 것으로, 유용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할 드린다.

** 고려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교신저자, ngokr@korea.ac.kr)

I. 서론

범죄피해는 왜 당하게 되는 것일까? 개인들의 부주의한 생활습관이나 실수로 인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 일찍부터 서구에서는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Cohen and Cantor, 1981; Sampson 1985; Miethe, Stafford and Long, 1987; Sampson and Woodredge, 1987; Smith and Jarjoura, 1989; Sampson and Groves, 1989; Kenndy and Forde, 1990; Garofalo and Clark, 1992; Miethe and Meier, 1993; Wilcox, Land and Miethe, 1994; Wilcox and Land, 2000; Tseloni, Wittebrood, Farrell and Pease, 2004; Villarreal, 2006; Messner, Zhou, Zhang and Liu, 2007). 반면, 국내에서는 비록 몇몇 연구들이 범죄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다루고는 있지만, 주로 청소년피해에 국한되거나(김준호, 1991; 노성호·이성식, 2003; 기광도, 2004; 박순진, 2005; 노성호, 2007), 지역적으로 볼 때 전국단위가 아닌 특정지역의 범죄피해를 대상으로(이성식, 1998; 박철현, 2003; 허경미, 2006) 연구가 진행되었다.¹⁾

우리가 다양한 범죄현상 중에서 범죄피해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범죄피해 현상이 갖는 실제적·이론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때문이다(박성훈, 2011). 사실 범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가능성이며, 범죄피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최근의 한국사회와 같이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점차 삶의 질 문제가 중요시되는 사회일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관심은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범죄피해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범죄학이론은 주로 가해자의 범죄동기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그러나 범죄는 가해자만 존재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반드시 범행의 대상이 되는

1)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한 범죄피해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는 있으나(최인섭·기광도, 1998; 박순진, 2003; 노성호, 2010; 황지태, 2010; 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양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범죄나 비행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는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존재해야만 범죄는 성립한다.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피해를 연구한다는 것은 범죄발생의 또 다른 측면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의 발생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Miethe and Meier, 1994).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유형 중에서도 가구범죄피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맞닥뜨리는 개인범죄피해를 그럴 가능성이 적은 가구범죄피해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구범죄피해 역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구범죄피해는 한 개인의 사적 공간이 낯선 외부인에게 침탈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어떤 한 집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가구에까지 미치는 두려움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ofalo and Clark, 1992: 445). 이처럼 가구범죄피해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 연구는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적으로 개별가구수준의 범죄기회와 지역수준의 지역특성으로 구분하고, 개별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개별가구수준의 범죄피해가능성을 높이는 지역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전국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범죄기회와 가구범죄피해

가.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은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제시하면서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보호능력의 부재”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일상활동이론이 발표되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힌델랑과 동료들

(Hinde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도 생활양식이론(lifestyle model)을 주장하였는데, 가구범죄피해와 관련하여 힌델랑(Hindelang, 1976)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도시 중심지에 거주할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Cohen and Cantor, 1981: 114-116).

범죄피해와 관련한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의 핵심적 내용은 보다 일반적인 “기회이론(opportunity model)”으로 통합되어 갔는데(Garofalo and Clark, 1992: 444), 범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기회요인을 보다 정교화 시켰다(Cohen, Kluegel and Land, 1981; Miethe and Meier, 1990). 이들은 기회요인을 범죄위험에의 노출(exposure),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 잠재적 피해자의 매력성(attractiveness) 및 보호능력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²⁾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구범죄피해는 매력성, 노출, 보호능력 등의 기회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and Cantor, 1981; Sampson and Wooldredge, 1987; Wilcox and Land, 2000). 초기의 연구에서는 범죄기회요인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근사변인(proxy variables)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가구수입을 매력성으로, 1인가구를 보호능력의 부재로 측정을 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기회요인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경우 개념과 측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해석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ursik and Grasmick, 1993; Miethe and Meier, 199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요인을 가구관련 특성으로 측정하는 대신 집을 비운 시간(노출)이라든지 경보장치(보호능력)와 같은 기회요인이 가구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코헨과 동료들(Cohen, Kluegel and Land, 1981: 507-508)에 따르면, ‘노출’이란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 동기화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가시성(visibility)이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의미하고, ‘근접성’은 잠재적 피해자가 사는 지역과 잠재적 범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를 의미하며, 범죄대상의 ‘매력’은 잠재적 범죄자가 느끼는 물질적·상징적 보상의 정도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의 저항력(inertia)을 의미하고, ‘보호능력’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치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의미한다.

나. 주거형태

범죄기회요인과 관련해 한국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주거형태이다(박성훈, 2011). 범죄기회이론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과는 별개로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축설계와 공간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도시건축가였던 뉴먼(Newman, 1972)의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에 대한 이론이 대표적인데, 그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영토성(territoriality)’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주거공간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덜 느끼는 공용장소와 개방공간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일수록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나 폭력의 온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뉴먼의 이론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나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anier and Henry, 1998: 195).

특히 상황적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표적강화전략(target hardening strategy)’이 가구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높은 담과 보안장치에 기초한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 역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김성언, 2009). 이것은 기회요인 중 하나인 보호능력과 맥을 같이 한다.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안전을 상징하는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 전형적으로 엿보인다(박성훈, 2011). 한국에서 아파트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와는 달리 매우 안정된 주거공간으로 여겨지며(Gelézeau, 2003), 서구의 아파트가 주로 영세민이나 노동자계급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전상인, 2009).

범죄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표적강화전략에 유리할 뿐 아니라 보호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기능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고(예를 들어, 단지 내 상가, 노인정,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각각의 공간을 경비원, 출입카드, CCTV 등 감시 장치를 통해 주민의 활동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까지도 쉽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최인섭·기광도, 1998)에서도 아파트 거주여부는 가구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은³⁾ 아파트 거주여부가 가구범죄피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2. 지역특성과 가구범죄피해

가. 사회해체이론의 전통

사회해체이론은 원래 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피해 연구가 일상활동이론이 처음에 가졌던 거시적 관점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점차 미시적 요인의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사회해체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거시적 관점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었다(Reiss, 1986; Sampson, 1986; Sampson and Woodredge, 1987; Bursik, 1988).

널리 알려진 대로 쇼와 맥케이(Shaw and McKay, 1942; 1969)는 1920년대 시카고 지역의 전이지대(transition zones)에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율이 일정하게 높은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비행율의 차이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즉 가난(poverty), 주거불안정(residential instability), 이질적인 인종구성(racial heterogeneity)과 같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사회를 해체시킴으로써 비행률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해체이론은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념 간 구분의 모호성과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그런 와중에 일군의 학자들이 쇼와 맥케이의 한계와 통찰력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을 제

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주택총조사 주택유형별 거주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 비율은 52.7%,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동단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61.2%로 보고되고 있다(www.kosis.kr).

시하였다(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Kubrin and Weitzer, 2003). 이들은 개인수준에서만 고려했던 범죄피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시 이론적 토대를 사회해체이론에서 찾았고, 더 나아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다.⁴⁾

대표적으로 버식과 그라스믹(Bursik and Grasmick, 1993)은 지역 내 통합의 정도가 범죄에 대한 통제력으로 작용하여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체계이론(systemic model)은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적 연결망(relational networks)’, 즉 지역의 유대를 매우 중요시한다.⁵⁾ 체계이론은 사회해체이론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가난, 이질적인 인종구성, 잦은 인구이동과 같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관계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관계적 연결망은 다시 지역 내 통제력에 영향을 끼쳐 해당지역의 범죄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유대의 효과는 반드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는 범죄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즉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의 연결망과 법을 준수하는 지역의 연결망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때때로 이러한 연결망은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나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Markowitz and Felson, 1998; Patillo, 1998; Anderson, 1999; Browning, Fienberg and Dietz, 2004).

실제로 오늘날 도시지역에서 강한 유대관계는 더 이상 지역공동체의 규범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과 제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유대가 형성될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지역유대와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샘슨과 동료들(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Sampson, Morenoff and Earls, 1999; 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
- 4)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학의 오랜 전통, 즉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구조 혹은 미시수준과 거시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과 맞닿아 있다(박성훈, 2011: 3).
- 5) 이러한 설명방식은 콜먼(Coleman, 1988)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과 상응한다(신동준, 2010). 실제로 콜먼은 사회해체가 높은 정도를 사회자본의 결여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고,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은 사회연결망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사회해체이론의 틀에 적용시킨 것으로도 이해된다.

은 강한 지역유대가 없이도 사회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친밀한 이웃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차적 사회관계가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가정을 버리는 대신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유대와 사회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대되는 행동을 연결시키기 위해 집합효능감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을 제시하였다. 샘슨(Sampson, 2004; 2006)은 집합효능감이 개념적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과 ‘사회통제에 대한 공유된 기대(shared expectation for social control)’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집합효능감이 범죄, 무질서, 건강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ampson, 2006).

이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에 따라 지역의 구조적 특성은 물론 집합효능감과 같은 중요한 지역통제요인이 지역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나. 근접성

이 연구에서 지역특성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다른 요인은 근접성(proximity)이다. 앞서 범죄피해발생의 기회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근접성을 이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으로 다루고자 한다.

원래 의미에서 근접성은 잠재적 피해대상과 잠재적 범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Cohen, Kluegel and Land, 1981; Miethe and Meier, 1994). 그러나 근접성을 측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근접성은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장소에서부터 가해자가 사는 집까지의 실제 거리로 측정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도심 지역, 수입이 낮은 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인종구성이 다양한 지역을 근접성로 측정을 하거나, 동네나 이웃의 지각된 위험수준을 근접성으로 측정하였다(Miethe and Meier, 1990; Tseloni, Wittebrood, Farrell and Pease, 2004).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데 있어 근접성은 이론적 측면에서나 경험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이론적으로 볼 때, 근접성은 범죄기회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성훈, 2011). 왜냐하면 낮은

경제수준, 주거의 불안정, 사회통제의 약화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은 최근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이나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회요인 중 하나인 근접성 개념과 연결이 되고 있다(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2006). 미이드와 마이어(Miethe and Meier, 1994)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구조적 요인의 결과는 ‘잠재적 범죄자 집단(pool of potential offenders)’의 출현이고, 따라서 지역수준의 기회요인으로서 근접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비록 근접성 개념이 일상활동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이긴 하지만 사회해체이론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며, 근접성을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역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근접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대학캠퍼스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박철현, 2003)에서는 지역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폭력범죄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허경미, 2006)에서는 노인들이 범죄자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할수록 재산범죄피해는 물론 폭력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성식(1998)의 연구에서는 우범지역의 거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내 연구에서 근접성을 지역수준의 특성으로 고려하고는 있으나, 주로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접성을 지역수준에서 범죄피해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가구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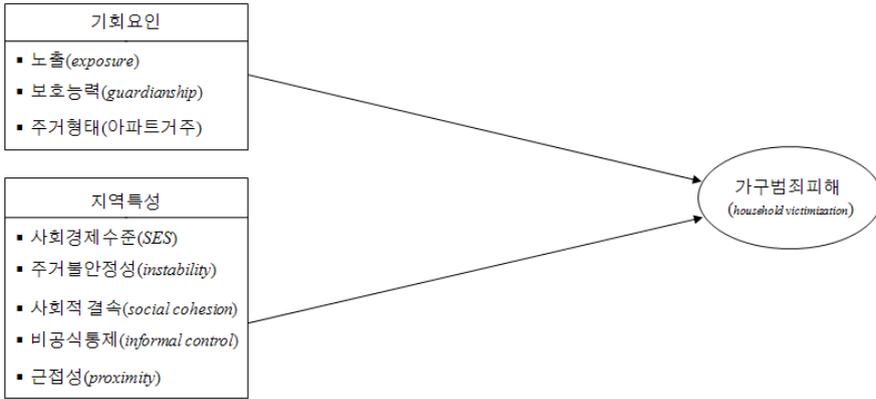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개별가구수준에서는 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한 노출과 보호능력과 같은 기회요인이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⁶⁾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1. 가구의 노출정도가 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할 것이다.
- 가설1.2. 가구의 보호능력이 적을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한 범죄기회요인으로 가정한 주거형태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설1.3.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수준에서는 사회해체이론 및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결속, 비공식통제와 같은 지역통제요인⁷⁾이 가구범죄피

6) 매력성을 제외한 이유는 가구의 경우 매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만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가구범죄피해에서 매력성은 흔히 가구수입으로 측정되는데, 만일 매력성을 가구수입으로 측정할 경우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1.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할 것이다.

가설2.2.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할 것이다.

가설2.3. 사회적 결속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할 것이다.

가설2.4. 비공식 통제가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수준의 요인으로 가정한 근접성의 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5.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선정

가. 전국범죄피해조사

이 논문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서 수집한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이다.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

7) 집합효능감은 지역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결속과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공식통제로 이루어진다(Sampson, 2006). 샘슨과 동료들(Sampson et al., 1997)에 의하면 집합효능감은 하나의 개념적 구조로 묶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집합효능감을 사회적 결속과 비공식통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집합효능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논문으로는 스텝토와 펠드먼(Stephoe and Feldman, 2001), 트리플릿 등(Triplett, Gainy and Sun, 2003), 벨레어와 브라우닝(Bellair and Browning, 2010), 윤우석(2010)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집합효능감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한다.

8) 새롭게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08

집단은 전국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표본추출 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표집은 전국을 25개 지역으로 층화시킨 후 각 층별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하여 지역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하였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나. 분석 대상

2008년 KCVS는 전국 16개 시도의 가구주를 기준으로 4,71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4,710명의 가구주 가운데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이나 읍/면/동지역이 혼재된 지방소도시는 제외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3,152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⁹⁾

도시 거주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이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이다. 쇼와 맥케이시는 1920~30년대 시카고 도시지역의 범죄율을 연구하였고, 샘슨과 동료들 역시 1990년대 시카고 도시지역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였다. 그 밖의 연구도 시애틀(Miethe and McDowell, 1993), 뉴욕,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Smith and Jarjoura, 1988), 필라델피아(Anderson, 1999) 등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미국의 폭력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Lauritsen, 2001),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비도시지역에 일반화시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지역별 범죄율에 관한 연구(정진성·곽대훈, 2008)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따라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론이 처음 등장한 배경이나 이론을 검

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9)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소 임의적일 수는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원 선거구 상한선이 인구 31만 9279명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선거구를 분석단위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하한선인 10만 5천 명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국의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도농(都農)복합지역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도시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증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이 논문은 도시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범죄피해 이론을 도시와 농어촌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한 분석을 위해 지역의 분석단위는 도시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인 ‘동(洞)’으로 정하였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행정은 물론 주택·교육·문화와 관련한 시민생활은 주로 동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수준에서 분석단위를 동으로 설정한 결과, 지역수준에서는 285개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변인의 측정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2008년 한 해 동안 ‘가구에서 당한 범죄피해’이다. 가구범죄피해로는 단순손괴, 단순침입,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기타 가구대상범죄가 포함되었다.¹⁰⁾ 만일 6개의 피해유형 가운데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면 ‘피해 있음=1’, 없으면 ‘피해 없음=0’으로 측정을 하였다.

나. 독립변인

1) 범죄기회요인

가구와 관련한 범죄기회요인으로 노출은 “당신과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은 하루 단위로 대략 몇 시간이나 됩니까?”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거의 비우지 않음=1’, ‘2시간 미만=2’, ‘2~4시간 미만=3’, ‘4~8시간 미만=4’, ‘8~12시간 미만=5’, ‘12시간 이상=6’까지 6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보호능력은 가구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 안팎을 감시하는 ‘CCTV’와 ‘출입카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설치되었으면 ‘예=1’,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0’

10) 가구범죄피해의 각 유형은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을 통해 사후적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각 범죄피해유형의 판별 기준은 김은경·최수형·박정선(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로 측정하였다.¹¹⁾

이 연구에서 또 다른 범죄기회요인으로 가정한 주거형태는 ‘아파트/오피스텔=1’, ‘연립/다세대/단독주택=0’으로 측정하였다.¹²⁾

2) 지역특성요인

지역수준의 변인은 크게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근접성으로 구분하였다.¹³⁾ 각 지역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은 가구수입, 직업지위, 교육수준의 요인점수(factor scores)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주거불안정성은 “최근 5년 이내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의 요인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지역통제요인으로 고려한 집합효능감은 사회적 결속과 비공식통제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결속은 “나는 급히 3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잘 돕고 신뢰 한다”, “이웃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비공식통제는 “동네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역시 각각의 문항을 합산한 후 지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1) 통상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CCTV 또는 출입카드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CCTV, 출입카드, 주거형태가 동일한 것을 측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수 간 상관정도를 살펴본 결과, CCTV와 아파트/오피스텔 간에는 0.585, 출입카드와 아파트/오피스텔 간에는 0.299로 상관성이 우려할 정도로 높지는 않아, 독립적인 범죄기회요인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12) 이 연구에서 측정한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아파트는 보통 단지를 구성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갖는 독특한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내적 차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자의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의 자료로는 아파트 단지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특성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3) 원래 지역수준의 변인은 동별로 객관적인 공식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인 연구자가 접근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설사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지역요인을 제대로 측정할만한 지표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경우 지역요인의 값을 개인요인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지역요인을 해당 문항의 동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의미에서 근접성은 피해자와 잠재적 범죄자와의 물리적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둘 사이의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근접성을 해당지역의 인지된 위험정도, 즉 범죄발생추세와 범죄발생가능성으로 측정하였다.¹⁴⁾ 범죄발생추세는 “작년 한해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수준은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소할 것 같습니까?”의 문항으로 척도는 ‘매우 감소할 것=1’에서부터 ‘감소할 것=2’, ‘변화 없을 것=3’, ‘증가할 것=4’, ‘매우 증가할 것=5’까지로 구성되었다. 범죄발생가능성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 문항 중에서 ‘우리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가구관련요인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구관련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성별(1=남성, 0=여성), 가구주 연령, 가구의 수입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가구관련 특성 가운데 중요한 변인은 가구의 세대구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구성을 더미변인으로 처리하여 ‘1인가구=1’와 ‘나머지가구=0’으로 구분을 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가구범죄피해는 이항형태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이 적절하다(Long, 1997). 그리고 지

14) 샘슨과 동료들(Morenoff and Sampson, 1997; 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2006)도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 개념을 통해 근접성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근접성을 살인과 같은 폭력이 발생하는 지역과 “얼마나 가까운지”로 측정하였다(Morenoff and Sampson, 1997: 43). 사실 이러한 방법이 근접성을 측정하는 데 보다 타당하리라는 데에는 연구자도 동의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각 동별로 집계된 공식범죄율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비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피해의 위험정도를 근접성으로 측정하였다.

역수준의 변인과 개별가구수준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다층자료에 적합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로짓분석을 위해서는 STATA 9.0 프로그램을,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에는 HLM 6.0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구조는 개별가구수준과 지역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위계적 형태의 자료이다. 따라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지역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의 변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만일 지역수준의 변량이 충분히 크다면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역수준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굳이 위계적 분석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로짓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통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적합하리라고 여겨진다.

HLM으로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개별가구수준(수준1)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수준에 따라 가구범죄피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바꾸어 말하면, 전국의 대도시 동별로 가구범죄피해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¹⁵⁾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가구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을 위계적 일반선형

15) 아쉽게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구범죄피해만을 고려할 때 분석단위로 설정한 동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는 가구범죄피해의 지역별 차이가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계적 모형의 핵심은 2수준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지역별 분석단위의 설정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현재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한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이웃(neighborhood)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단위는 역시 동 단위라고 주장하고 싶다.

모형이 아닌 다변량 로짓분석을 통해 변인들을 상호 통제된 후의 영향력을 살펴하기로 한다.

표 1. 가구범죄피해의 HLM 변량분석 결과

변수	가구범죄피해(285개 동)
고정효과	
전체평균 γ_{00} (표준오차)	-3,152 (0,100)
랜덤효과	
지역 간 u_{0j} (표준오차)	0,576 (0,759)
카이제곱	303,336
자유도	284
<i>p-value</i>	0,206

2. 가구범죄피해의 로짓분석

먼저 모형1에서는 가구관련 특성, 즉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가구의 수입, 세대구성(1=1인가구, 0=기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가구의 수입과 1인가구로 나타났다. 즉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혼자 사는 집일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Cohen and Cantor, 1981; Sampson and Wooldredge, 1987; Wilcox and Land, 2000)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변인을 모두 통제된 모형4에서는 가구수입의 효과는 사라진 반면, 1인가구의 영향력은 여전히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¹⁶⁾

16)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1인가구의 부적인 효과는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이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면상 자세한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1인가구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박성훈(2011: 117-118)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가구범죄피해 로짓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값	Exp(b)
가구관련요인	남성가구주	-0.09 (-0.44)			-0.12 (-0.57)	0.89
	연령	0.00 (-0.28)			-0.01 (-0.86)	0.99
	가구수입	-0.14* (-1.80)			-0.01 (-0.14)	0.99
	1인가구	-0.51* (-1.87)			-0.53* (-1.89)	0.59
범죄기회요인	CCTV		-0.19 (-0.78)		-0.14 (-0.57)	0.87
	출입카드		-0.36 (-0.99)		-0.31 (-0.84)	0.73
	집비운시간		-0.03 (-0.24)		0.02 (0.19)	1.02
	아파트/오피스텔		-0.78*** (-3.25)		-0.68*** (-2.73)	0.51
지역특성요인	사회경제수준			-0.45** (-2.47)	-0.27 (-1.25)	0.76
	주거불안정성			-0.19 (-0.97)	-0.09 (-0.46)	0.91
	사회적결속			0.14 (1.60)	0.13 (1.50)	1.14
	비공식통제			-0.10 (-1.14)	-0.09 (-0.96)	0.91
	근접성			0.36*** (2.84)	0.26** (2.00)	1.29
	상수	-2.35*** (-4.50)	-2.66*** (-10.67)	-5.48*** (-4.09)	-4.14*** (-2.77)	
	LR χ^2	5.23	27.91***	21.90***	41.66***	
Pseudo R ²	0.005	0.025	0.019	0.037		
사례수	3,152	3,152	3,152	3,152		

(모형4-모형1) 적합도 비교 LR $\chi^2(9)=36.43***$

(모형4-모형2) 적합도 비교 LR $\chi^2(9)=13.75$

(모형4-모형3) 적합도 비교 LR $\chi^2(8)=19.77**$

*p<0.1 **p<0.05 ***p<0.01

()의 값은 Wald 검증값(z)을 나타냄

모형2에서는 범죄기회요인으로 설정한 노출의 정도(집을 비운 시간)와 보호능력(가구범죄를 예방하는 침단장비의 효과), 그리고 주거형태(아파트/오피스텔 거주여부)를 검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노출과 보호능력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직 주거형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모형3은 지역수준에서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사회적 결속, 비공식통제, 근접성이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지역특성 중에서는 사회경제수준과 근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살수록,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나마 사회해체이론이 지지되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사회적 결속이나 비공식 통제와 같은 지역통제요인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 지역수준의 요인으로 강조하였던 근접성은 가구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개별가구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을 상호 통제할 경우 영향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모형4는 모든 변인을 고려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대구성(1=1인가구), 주거형태(1=아파트/오피스텔 거주), 근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수준의 요인으로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사회경제수준은 모든 변인을 통제하자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가설 가운데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별가구수준에서는 주거형태(가설1.3)와 지역수준에서는 근접성(가설2.5)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의 효과를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49%($\exp[-0.68]=0.51$)나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자체가 가구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접성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위험하다고 인지할수록 위험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비해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9%($\exp[0.26]=1.29$) 정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개별가구수준의 주거형태와 지역수준의 근접성 효과 중에서 가구범죄피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모형적합도 비교를 확인한 결과, 기회요인만 고려한 모형2와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형4 간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지역특성만 고려한 모형3과 모형4 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달리 말하면 개별가구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모형과 개별 가구수준의 요인만을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개별가구수준의 기회요인 중에서도 주거형태(아파트/오피스텔 거주)가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5. 논의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지역수준의 요인만 고려했을 경우(모형3), 사회경제수준과 근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요인으로서 사회경제수준과 근접성이 개별가구수준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주거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주거불안정성과 사회경제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사회경제수준은 개인의 주거지역(서울, 수도권, 지방도시)은 물론 주거형태, 즉 아파트에 사느냐 단독 혹은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느냐에 영향을 미치며, 같은 아파트라도 고급 대형아파트에 사는지 일반 중소형아파트에 사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완벽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은 <표 3>에서와 같이 지역수준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비율과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주택형태에 대한 상관분석(N=285)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아파트/오피스텔 비율
사회경제수준	1,000		
주거불안정성	0,369***	1,000	
아파트/오피스텔 비율	0,321***	0,216***	1,000

***p<0,01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사회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불안정성도 높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사회경제수준과 주거불안정성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369$). 주의 깊게 볼 것은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오피스텔 비율이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r=0.321$) 주거불안정성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r=0.216$). 이것은 주거형태를 통해 사회해체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사회해체이론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거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박성훈, 2011).

범죄피해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주거형태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단독주택 가구일수록 주거이동이 적다는 사실이다.¹⁷⁾ 그런데 가구범죄피해가 높은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단독주택가구의 사회경제수준보다 아파트가구의 사회경제수준이 높다는 사실, 그리고 아파트가구일수록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살고 있는 주거형태와 사회경제수준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지만, 사회해체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낮은 사회경제수준, 높은 주거불안정성이 반드시 높은 상관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근접성은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다른 어떤 지역요인보다 가구범죄피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근접성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동네의 위험수준으로 측정을 하였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지역에 '잠재적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이든 언론이나 소문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이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주 범죄가 발생한다

17) 추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거형태에 따른 평균거주기간을 보면 단독주택은 약 15년인데 비해 아파트는 약 7.5년, 오피스텔은 약 2년 정도로 나타난다.

고 느끼거나 인지하는 지역일수록 실제 가구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결속, 비공식통제, 주거형태, 근접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접성은 사회적 결속($r=-0.316$), 비공식통제(-0.243)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근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결속력도 낮고, 비공식통제도 낮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아파트/오피스텔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근접성($r=-0.375$)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4. 사회적 결속, 비공식통제, 주거형태, 근접성에 대한 상관분석(N=285)

	사회적 결속	비공식통제	아파트/오피스텔 비율	근접성
사회적 결속	1,000			
비공식 통제	0,391***	1,000		
아파트/오피스텔 비율	-0,036	0,086	1,000	
근접성	-0,316***	-0,243***	-0,375***	1,000

***p<0,01

결국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에서 주거형태와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근접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특성이 다양하게 얽히면서 가구범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연구는 다양한 범죄피해의 유형 가운데 가구범죄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가구수준에서 범죄기회요인과 지역수준에서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가구수준에서는 주거형태,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에서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역수준에서는 사회경제수준이나 사회적 결속, 비공식통제의 영향력보다는 근접성, 즉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지역일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도시지역을 배경으로 한 범죄기회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

락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재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대규모 표본으로 이루어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구범죄피해의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주거형태라는 한국의 도시지역의 특성을 범죄피해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한국적 맥락의 범죄피해이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근접성과 같은 지역수준의 요인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수준의 요인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수준에서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여 개별가구수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조건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기광도. 2004. “범죄 및 피해의 중첩성에 관한 분석.” 『피해자학연구』 12(2): 269-304.
- 김성인. 2009.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1045-1078.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1.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 269-301.
- 김준호, 박현수, 박성훈.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 135-172.
- 노성호, 이성식. 2003.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피해자학연구』 11(2): 27-52.
- 노성호. 2007.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피해자학연구』 15(2): 257-284.
- 노성호. 2010.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형사정책연구』 21(3): 78-102.
- 박성훈. 2011.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진.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14(2): 271-300.
- 박순진. 2005.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13(2): 241-269.
- 박철현. 2003. “캠퍼스 범죄피해의 원인: 생활양식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15(1): 258-288.
- 신동준. 2010. “사회자본과 범죄학이론.” 『한국사회학』 44(4): 95-125.
- 윤우석. 2010.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3): 381-407.
- 이성식. 1998.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 조건적 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85-109.

-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서울: 이숲.
- 정진성, 곽대훈. 2008.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19(3): 221-290.
- 최인섭, 기광도. 1998. “가구 및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4): 61-80.
- 허경미. 2006.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71-300.
- 황지태. 2010b.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2008년도 주요범죄 압수 추정.” 『형사정책연구』 21(3): 7-51.
- Anderson, Elijah. 1999. *Code of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Y: W. W. Norton & Company.
- Bellair, Paul and Christopher Browning. 2010. "Contemporary disorganization research: An assessment and further test of the systemic model of neighborhoo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7(4): 496-521.
- Browning, Christopher R., Seth L. Feinberg and Robert D. Dietz.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 503-534.
- Bursik, Robert J. Jr.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 519-551.
- Bursik, Robert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Cohen, Lawrence E. and David Cantor. 1981. "Residential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Life-style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8: 113-127.
-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Lawrence E., James R. Kluegel and Kenneth C. Land.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Garofalo, James and David Clark. 1992. "Guardianship and residential burglary." *Justice Quarterly* 9(3): 443-463.
- Gelézeau, Valérie. 2003. *Séoul, ville géante, cités radieuses*. 김혜연 옮김.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서울: 후마니타스.
- Hindelang, Micheal J. 1976. *Criminal victimization in eight american cities: A descriptive analysis of common theft and assault*. Cambridge, Mass: Ballinger.
- Hindelang, Micheal J., Micheal R. Gottfredson and James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ss: Ballinger.
- Kennedy, Leslie W. and David R. Forde. 1990. "Routine activities and crime: An analysis of victimization in Canada." *Criminology* 28(1): 137-152.
- Kubrin, Charis E. and Ronald Weitzer. 2003. "New directions i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4): 374-402.
- Lanier, Mark M. and Stuart Henry. 1998. *Essential criminology*. Cumnor Hill, Oxford: Westview Press.
- Lauritsen, Janet L. 2001. "The social ecology of violent victimization: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in the NCV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1): 3-32.
-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arkowitz, Fred E. and Richard Felson. 1998. "Social-demographic attitudes and violence." *Criminology* 36(1): 117-138.
- Messner, Steven. F., L. Zhou, L. Zhang and J. Liu. 2007. "Risks of criminal vic-

- timization in contemporary urban China: An application of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Justice Quarterly* 24: 496-522.
- Miethe, Terance D. and Davi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 741-759.
-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0. "Criminal opportunity and victimization rates: A structural-choice theor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243-266.
-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iethe, Terance. D., Mark C. Stafford and J. Scott Long.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 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Morenoff, Jeffrey D. and Robert J. Sampson. 1997. "Violent crime and the spatial dynamics of neighborhood transition: Chicago, 1970-1990." *Social Forces* 76: 31-65.
- Morenoff, Jeffrey D., Robert J. Sampson and Stephen W.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 517-559.
- Newman, Oscar. 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Pattillo, Mary E. 1998. "Sweet mothers and gangbangers: Managing crime in a black middle-class neighborhood." *Social Forces* 76(3): 747-774.
- Raudenbush, Stephen W. and Anthony S. Bryk.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Reiss, Albert J. Jr. 1986. "Why are communiti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crime?" pp. 1-33. in Albert J. Reiss, Jr. and Michael Tonry(eds.). *Crime*

and Justice, Volume 8: Communities and Cr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mpson, Robert J. 1985. "Neighborhood and crime: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so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7-40.

Sampson, Robert J. 1986. "The effects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 pp. 271-311. in Albert J. Reiss, Jr. and Michael Tonry(eds.). *Crime and Justice, Volume 8: Communities and Cr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mpson, Robert J. 2004. "Neighbourhood and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and community safety." *New Economy* 106-113.

Sampson, Robert J. 2006. "Collective efficacy theory: Lessons learned and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pp. 149-167. in Francis T. Cullen, John Paul Wright and Kristie R. Blevis(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Felton Earls.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 633-660.

Sampson, Robert J. and John D. Wooldredge. 1987. "Linking the micro-level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371-393.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Thomas Gannon-Rowley.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443-478.

- Sampson, Robert J., Stephen W. Raudenbush and Felton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A study of rates of delinquency in relation to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n American c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Douglas A. and G. Roger Jar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s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 621-640.
- Stephoe, Andrew D. and Pamela J. Feldman. 2010. "Neighborhood problems as sources of chronic str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neighborhood problems and associations with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3: 177-185.
- Triplett, Ruth A., Randy R. Gainy and Ivan Y. Sun. 2003. "Institutional strength, social control and neighborhood crime rates." *Theoretical Criminology* 7: 439-467.
- Tseloni, Andromachi, Karin Wittebrood, Graham Farrell and Ken Pease. 2004. "Burglary victim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e United States and Netherland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test of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 theor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66-91.
- Villarreal, Andrés and Bráulio F. A. Silv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2.
-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2000. "Generalizability of multi-level models of burglary victimization: A cross-city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29: 284-305.

Wilcox, Rountree Pamela, Kenneth C. Land and Terance D. Miethe. 1994.
"Macro-micro integration in the study of victimization: Hierarchical logistic
mod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Criminology* 32(3): 387-414.

Assessing the Criminal Opportunities and Neighborhood Effects on Household Victimization

Seong-Hoon, PARK*

This study examined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area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residential instability, collective efficacy, proximity-measured independentl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such as exposure, absence of guardianship, types of dwelling house-contribute to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household victimization.

The research used 2008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for 3,152 householder who was living in the cities. The two major findings by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as followed: First,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s were less likely victimized than other types of dwelling house. But exposure and guardianship had not effects on household victimization. Second, results implied that proximity only had a effect on household victimization in the community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erefore, that routine activity theor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could be partly reinterpreted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 Key words: household victimization, routine activity theory,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partmental culture, proximity

투고일 : 9월 9일 / 심사(수정)일 : 9월 26일 / 게재확정일 : 9월 26일

